

제56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6. 5. 8.(금) 16:00
장 소	(춘천) 대학본부 교무회의실 (강릉) 대학본부 220호 (삼척) 본관 304호 (원주) 대학본부 209호
참석인원	24명(배석자 포함)
참 석 자	(춘 천) 우흥명, 최익영, 김대기, 이승환, 박기복, 한은택, 김병철, 김형건, 윤헌정, 정한성, 김힘, 김동현(12명) (강 릉) 한갑수, 최용철, 권기욱, 박호용, 양동호(5명) (삼 척) 남기택, 박훈, 류이수(3명) (원 주) 최상일, 김찬호(2명) ※ 위임장: 이유진, 송한규, 유지성, 박성욱, 유형민, 이성민(6명)
불 참 자	홍진서, 장순기(2명)
배 석 자	교무혁신부처장, 학사혁신부처장
회의순서	1. 평의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호선 2. 심의 관련 논의 3. 기타 논의 및 폐회
상정안건 및 표결결과	<상정안건> (심의) 1.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표결 결과> 수정 가결 (논의) 1.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호선 - 의장: 우흥명 교수회장, 부의장: 한갑수 강릉 캠퍼스 교수회장 2. 기타 안건 - 평의위원회 규정, 운영 세칙은 행정실을 통해 의견 수렴 후 작성

□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호선

(우홍명 교수회장) 안녕하십니까. 현재 제가 의장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임시로 회의를 진행할 진행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강원대학교 통합 전 평의위원회 의장을 했고 현재 통합 강원대학교 교수회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임시 진행을 맡고자 합니다.

(우홍명 교수회장) 저를 평의위원회 의장으로 추천하신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기존에 해왔던 경력을 살려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인원의 거수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거수 투표 진행. 현원 참석 22명 16명 찬성)

(우홍명 평의위원회장) 현원 참석 22명 중 16명이 찬성하였기에 우홍명 평의원이 의장으로 호선되었습니다. 초대 평의위원회 의장으로서 최고 심의 기구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의장 선출을 진행하겠습니다.

(우홍명 평의위원회장) 부의장으로 추천된 한갑수 강릉 캠퍼스 교수회장님에 대해 거수로 부의장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거수 투표 진행. 현원 참석 22명 16명 찬성)

(우홍명 평의위원회장) 강원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부의장으로 강릉 캠퍼스의 한갑수 평의원님이 호선되었습니다.

(한갑수 평의위원회부의장)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성원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장님과 함께 최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학칙안 심의

(우홍명 평의위원회장) 오늘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처리 사안인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학칙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담당 부처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환혁 교무혁신부처장) *안건설명*

(최용철 교원평의원) 개정안 대비표 2조에서 당초에 있었던 '통합 학사 행정 시스템 구축 전까지'라는 표현이 최종 변경안에서 빠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만약 빠졌다면 이것이 영구 조치인지 잠정 조치인지에 대한 학칙상 명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윤정 학사혁신부처장) 해당 문구가 빠진 이유는 학사 업무 외에도 입학처 등 여러 부서에서 유사한 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통합 학사 행정 시스템 구축 시점만을 기준으로 일괄 종료될 수 없는 구조가 있을 수 있어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열어두었습니다. 필요성이 해소가 되면 해당 특례 역시 자연스럽게 종료되므로 영구적인 권한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용철 교원평의원) 그렇다면 '위임 업무의 범위 및 기간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별도의 통제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평의원회의 학칙 심의권이 사후에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최윤정 학사혁신부처장) 본 조항은 총장의 권한을 외부로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캠퍼스 간 통합 학과에 한해 주관 학과 학장의 권한을 참여 학과 학장에게 위임하는 행정 특례입니다. 이미 주관 학과와 참여 캠퍼스 간의 내부적인 협의와 합의를 거쳐 올라온 최종안입니다. 또한 다수의 학칙에서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며 별도로 평의원회 보고 의무를 두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환 교원평의원) 통합 학사 행정 시스템이 통합된 이후에는 해당 학과의 학사 업무는 최종적으로 누가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까?

(최환혁 교무혁신부처장) 원칙적으로는 주관 학과의 학장이 처리하는 것이 통합 학과의 취지에 맞으며, 시스템 구축 이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는 그 시점에 가서 협의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상일 교원평의원) 저희 컴퓨터 공학과도 해당 통합학과 소속인데, 학기 초 시스템 미비로 인해 조교 선생님들이 행정 처리에 큰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현재는 원주 캠퍼스 과학기술대학 학장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이러한 방식으로 일이 처리되는 것이 행정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힘 조교평의원)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조교 선생님들이 상이한 캠퍼스별 시스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부처에서 업무 흐름도나 결재선 등을 안내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환혁 교무혁신부처장) 의견을 잘 반영하여 준비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 평의원회부의장) 2조의 문구 중 '학사 업무 처리 등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는 표현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이므로,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최윤정 학사혁신부처장) 저희 내부 회의에서도 혼동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강릉 회장님 말씀과 연계하여, '참여 학과 소속 구성원과 관련된 업무 및 학사 업무 처리 등에 관한 학장의 권한 중 일부를 참여 학과가 소재한 캠퍼스의 학장이 수행할 수 있다'로 문구를 변경하여 최종안을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홍명 평의원회의장) 제안된 수정 문구에 대해 본부와 평의원회 모두 합의한 것으로 보고,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학칙안은 해당 문구 수정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 논의 및 폐회

(우홍명 평의원회의장) 다음으로 학칙과 평의원회 규정에 따른 캠퍼스 평의원회 (분회) 구성 및 운영 세칙 마련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한갑수 평의원회부의장) 4개 캠퍼스별로 따로 세칙을 정하기보다는, 기능이 대동소이할 것이므로 통합 세칙으로 하나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행정실 등에서 초안을 만들고 각 캠퍼스별로 공람을 거친 후 다음 평의원회 때 심의를 거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최익영 교원평의원) 현재 평의원회 조직상 의장, 부의장 외에 업무를 관장할 사무실 직원이 있으나 로드가 걸릴 수 있으므로, 의장님께서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사무처장이나 간사님 같은 분을 정해서 초안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홍명 평의원회의장) 4개 캠퍼스로 확대되면서 회의 진행이나 정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른 대학처럼 평의원회 업무를 보좌하고 총괄할 수 있는 '사무총장'이나 '사무처' 보직을 신설하여 운영 세칙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 주신다면 업무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은택 교원평의원) 동의합니다.

(우홍명 평의원회의장) 의장, 부의장과 행정실이 함께 논의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초안을 만든 뒤, 단톡방을 통해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용 조교평의원) 현재 30명인 평의원회 구성은 통합 전 강원대학교 비율만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체계에서는 원주 캠퍼스에 조교와 직원 평의원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학칙에 정해진 인원 비율을 수정하지 않으면서 각 직능별 요구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평의원 인원을 30명에서 44명(교원 22명, 직원 8명, 조교 4명, 학생 10명)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특정 캠퍼스나 직군이 전체 구성원의 과반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개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평의원회부의장) 오늘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소관 부서나 평의원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동의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홍명 평의원회의장) 이 내용은 이전에 제가 3개 캠퍼스를 순회하며 공통적으로 들었던 의견입니다. 의장단과 행정실이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홍명 평의원회의장) 오늘 제기된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의견 수렴과 토론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대학교 대학평의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